

오피니언

다산포럼

김정남



임어당(林語堂)은 공자를 성인이나 학...

습니다'라고 말하자 공자께서 빙긋이 웃...

'구야, 너는 어떠한가?'고 묻자 염유가...

눈을 들어 먼 산을 바라보라

이런 백성들을 풍족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

'잠야, 너는 어떠한가?' 중씨는 슬(瑟)을...

'늦은 봄에 봄옷을 지어 입고 어른 대어섯...

글은 더 이어지지만, 앞에서 빠고 뒤에...

도 좋지만, 때를 알고 풍류를 즐기는 것 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올해 그들의 봄을...

'5월은 금방 찬물로 세수를 한 스물 한...

그 뒤로는 천안함 사태의 진실을 놓고...

의 생명을 앗아간 천안함 사태에 어안이...

'나날이 푸르러 가는 이 산 저 산, 나날이...

「나날이 푸르러 가는 이 산 저 산, 나날이...

덕, 그리고 하늘을 달리고 녹음을 스쳐오...

어느덧 신록이 짙푸른 녹음으로 변해가...

더 아름다운 신록을 보러거든 소백산,...

그러다 보면 천안함 사태가 가야할 길도...

그 속에 길이 있고 생각이 있을지니 가...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

시설

'비리온상' 수의계약 개선책 마련 시급하다

수의계약 과정에서 묻어나는 공무원...

수의계약 과정에서 묻어나는 공무원...

수의계약 관련 비리가 고질화되는 것...

수의계약 관련 비리가 고질화되는 것...

의 소지가 클 수밖에 없다. 수의계약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수...

이런 사건은 공무원 1인이 어떻게 장...

수의계약 구조를 서둘러 개선하고 비리...

광주 문진위 혈세로 해외 가족여행이라니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문진위)가...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문진위)가...

문제는 이들 홍보팀 파견이 당초 취...

이런 경제 빙하기에 나랏돈을 들여...

이런 경제 빙하기에 나랏돈을 들여...

이 당초의 국외여행 목적과 어긋나다고...

다. 산하기관인 문진위에 6억원이라는...

국민 세금으로 해외여행을 떠날 때는...

이러한 경제 빙하기에 나랏돈을 들여...

이러한 경제 빙하기에 나랏돈을 들여...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시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NGO 칼럼

박필순



5·18 30주년 행사로 부산했던 5월 광...

의 농업을 살릴 수 있다. 채식은 아재...

첫째, 채식급식은 우리 아이들의 건...

이렇듯 채식급식은 아이들의 건강과...

지구·건강·농민 살리는 일석삼조 '채식'

스크립 등 정크 푸드는 아이들이 식탁...

산되고 있다. 벨기에 헨트시를 비롯해...

둘째, 채식급식은 우리가 사는 지구...

광주에서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친...

셋째, 채식급식은 우리가 사는 지역...

30도가 넘어가는 6월의 오늘, 지구의...

30도가 넘어가는 6월의 오늘, 지구의...

기고

나도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복면이가...

전남의 전통문화유산과 광주의 아시아...

21세기를 문화산업의 시대라고 한다.

우리지역은 수도권에 비해 질적으로...

문화콘텐츠가 전남의 미래다

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합평군은 11...

은 타 산업과는 달리 창의력과 상상...

정부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

이제 시작이다. 다행히 광주·전남 공...

한국의 문화콘텐츠산업은 2007년 58...

이제 시작이다. 다행히 광주·전남 공...

한국의 문화콘텐츠산업은 2007년 58...

이제 시작이다. 다행히 광주·전남 공...

무리한 영어 조기교육 언어장애 올 수도

요즘 조기교육이 열풍이라 유치원 때부...

이것은 사물의 적합성이나 사물이 가지...

無等鼓

6·2 지방선거가 끝나자 민주당은 그...

민주당의 소득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

이런 선거를 통해 '486 기수'로 떠오...

이들은 움직일 수 있는 '스타'까지...

新 40대 기수론



이들은 움직일 수 있는 '스타'까지...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광주일보 2010년 6월 8일 화요일

대표전화 222-8111, 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2200-672, 2200-634, 2200-641, 2200-617, 2200-627

경영지원국 2200-511, 222-8005, 222-0195, 227-9600, 227-9500, 227-9500, 227-9500, 227-9500, 227-9500